

Contents

– 진도표

– 축하해

0. 친해지기

| | |
|-------------------------|-----|
| 1. 왜 이 책을 썼을까? | 000 |
| 2. 영어듣기의 중요성? | 000 |
| 3. 이런 학생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 | 000 |
| 4.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 000 |
|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 000 |

I. 유추하기

| | |
|-----------------------------|-----|
| 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1) | 000 |
| – 연습문제 1 | 000 |
| – 연습문제 2 | 000 |
| 2.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2) | 000 |
| – 연습문제 3 | 000 |
| 3.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긴 대화 | 000 |
| – 연습문제 4 | 000 |
| – 연습문제 5 | 000 |
| – 연습문제 6 | 000 |
| 4. 상황유추 | 000 |
| – 연습문제 7 | 000 |
| – 연습문제 8 | 000 |

Ⅱ. 계산하기

| | |
|------------------------|-----|
| 1. 돈 계산 (1) - 정리하기 | 000 |
| - 연습문제 9 | 000 |
| 2. 돈 계산 (2) - 10%의 법칙 | 000 |
| - 연습문제 10 | 000 |
| 3. 돈 계산 (3) - 여러 가지 상황 | 000 |
| - 연습문제 11 | 000 |

Ⅲ. 미리알기

| | |
|-----------------------|-----|
| 1. 말의 목적(주제) | 000 |
| - 연습문제 12 | 000 |
| 2. 의견 | 000 |
| 3. 일치/불일치 (1) - 내용 일치 | 000 |
| - 연습문제 13 | 000 |
| - 연습문제 14 | 000 |
| - 연습문제 15 | 000 |
| 4. 일치/불일치 (2) - 그림 일치 | 000 |
| - 연습문제 16 | 000 |
| - 연습문제 17 | 000 |
| 5. 1지문 2문항 | 000 |
| - 연습문제 18 | 000 |

Ⅳ. 미리보기

| | |
|---------------|-----|
| 1. 실전 풀이법 (1) | 000 |
| 2. 실전 풀이법 (2) | 000 |
| 3. 실전 풀이법 (3) | 000 |

- 고마워
- Special Thanks to
- 정답과 해설

0. 친해지기

1. 왜 이 책을 썼을까?

쌤~ 영어듣기는 어떻게 공부해요?

이 질문은 내가 수험생일 때는 물론 학원조교로 상담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입시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등 수도 없이 들어본 질문이야. 이 질문이 결국 내가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분명 너희들도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걸 들어봤을 거고 혹은 너희들도 이 질문을 해봤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거고.

영어듣기는 당연히 많이 **들어보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듣고** 들릴 때까지 **듣고**,
딕테이션(**듣고** 받아쓰기)하면 돼.
취약한 유형들은 특히 많이 **들어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지. 나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

독해파트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또는 스킵)을 알려주는 개념서들이 많은데, 왜 듣기파트에는 이런 뜬구름 잡는 **천편일률적**인 방법만 존재할까? 만약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학생들은 왜 끊임 없이 영어듣기 공부법에 대해 물어볼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번 영어듣기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듣자 이러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고 많은 고민을 했지.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아.

독해와 마찬가지로 듣기도 각 유형별로 평가하고 싶은 능력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공부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즉, 무조건적인 듣기를 통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결론을 내리자마자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좀 더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방법을 말 이야.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를 분석했고 각 틀리는 이유에 대한 Solution을 찾았지. 이 틀리는 이유는 막연히 '이렇게 틀릴 수도 있겠지?'라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수험생일 때의 경험과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라 많이들 공감할거야.

어떤 방법일까? 이 방법은 여태까지의 듣기 공부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야.
바로,

듣기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울 거야. 이 방법을 찾은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ㅋㅋ). 방법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당혹감이 줄어들 거니깐 걱정 마. 혹여나 영어듣기를 잘 못하는 학생이 '이 방법이 나한테도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수능영어에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역대급난이도로 손꼽히는 13, 14학년도 수능에서 모두 원점수 100점으로 백분위 100%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공부법이 만들었으니 중·하위권들에 잘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실제로 쓴 방법을 그대로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만든 방법이 대부분이고 내가 썼던 실전적 Tip이 조금 들어간 거야. 그 학생들 중에는 듣기를 3개정도 틀리는 학생들부터 많게는 7~8개를 틀리는 학생까지 있었어. 그러니깐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면 돼.

여기까지는 이 책을 쓴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방법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처음엔 책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 단지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고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걸 보니 이 방법을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쉽게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그러지 못했어.** 입대를 하고나서 이 방법을 책으로 만든다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시중에는 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만 넘쳐나고 듣기를 위한 개념서가 없더라구. 또, 인강을 듣자하니 듣기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고...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율적인 듣기 개념서를 만들자! 내 책을 시작으로 더 좋고 더 효율적인 듣기개념서가 나오면 좋겠어.

* 자랑질 미안미안~ㅎ

** 지금도 열심히 복무 중이지ㅋㅋ

2. 영어듣기의 중요성?

수능 : 국어 = 영어 : ?

위의 물음표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 바로 ‘듣기’라고 답했을 거야. 그렇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주변에 보면 1교시 국어를 망쳐서 멘탈이 깨지는 바람에 수능(또는 모의고사) 전체를 망쳤다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영어듣기에서 한 문제라도 애매하면 영어영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이 건 비단 중·하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타격을 크게 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듣기는 쉽다는 생각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침 또는 점심에 잠시 듣기방송을 틀어주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이도와 중요성은 비례하지 않아.

난이도가 쉽다고 소홀히 하고 어렵다고 열심히 하다간 큰코다칠 거야. 왜 그럴냐구? 듣기는 배점이 2, 3점이고 독해도 마찬가지야. 독해에서 정답률이 30~40%인 문제를 틀리는 건 나도 틀릴 수 있고 남들도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아. 그런데 정답률이 높은 듣기를 틀리는 건 심한 타격을 입게 되지. 따라서 듣기는 다 맞춰야 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을수록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

* 그래! 바로 네! ㅎㅎ

** Nevertheless! ㅎㅎ 사실 난 주석성애자야 크크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3. 이런 학생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

우선 미안하지만 듣기를 10개 이상 틀리는 학생은 듣기의 기본적인 학습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 이 책은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듣기가 전혀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거든(ㅠㅠ).. 기회가 되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쓰도록 해볼게.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 책을 보면 될지 알아보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각 분류 별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조금씩 달라.

1. 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학생
2. 듣기를 3~4개 틀리는 학생
3. 듣기를 1~2개 틀리는 학생

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학생들은 특정 유형을 틀리기보다 다양하게 골고루(?) 틀리는 경우가 많아. 듣기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지. 바로바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깐.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므로 이 책을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가장 성적이 잘 오르는 분류이기도 해. 이 학생들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길 바라.**

듣기를 3~4개 틀리는 학생들은 또 2가지로 분류돼

①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있는 학생

실수보다는 그 유형이 원하는 논리력, 사고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학생들이야. 그런데 논리력,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듣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성적이 오를 리가 있나!*** 대부분의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이 책의 앞단원에 있으니 앞단원에 집중하되 뒷단원도 소홀히 하지는 마.

② 틀리는 유형이 매번 달라지는 학생

덤벼대는 학생일 확률이 높아. 논리력과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집중력이 약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1~2개를 틀리는 학생과 같은 수준이야.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니 인정하고,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줄 때 좀 더 유의하도록 해. 또 현재 틀리는 문제를 맞히기 위한 논리력과 사고력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하구.

* 안녕! 사실 주석성애자 + 설명요정이야. 부분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건 문장 전체를 듣고 뜻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어, 단어를 듣고 조합해서 뜻을 생각한다는 뜻이야.

** '바라'와 '바래' 바른 표현. '바라다'는 어간 '바라-' 뒤에 어미 '-아'가 붙을 때 '바라'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국어영역에 나오면 개이득?)

*** 화난 거 아님(단호)

마지막으로, **듣기를 1~2개 틀리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장이 잘 들리는 편이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 하지만 긴장감*, 후반에 집중력저하, 특정 유형에 대한 징크스** 등으로 인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지. 또 독해의 빈칸추론처럼 듣기에도 고질적인 취약 유형이 있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책을 사서보면 “아니 무슨 듣기를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 독자가 중·하위권이라 그런 거니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볼 수 있도록. 그럼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특히, **시간이 부족해서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고 싶은 학생은 전체적으로 읽어보길 바라.** 듣기와 독해를 동시에 풀다가 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듣기 할 때는 듣기만 하라고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쓴다면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도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 연습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 필요는 없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의 연습문제만 풀어봐. 그리고 III.미리알기, IV.미리보기를 잘 활용하면 독해하는데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볼 학생들은 보길 바라.

QnA

Q: 선생님~ 저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데 유형별로 푸는 법인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ㅠㅠ

A: 좋은 질문이야!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부분 부분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17문제 중 10문제 이상은 맞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틀린 후에 다시 들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보다 잘 들리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야. 예를 들어, 1~2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게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듣기가 끝나. 이 경우에도 ‘잘 안들린다.’라고 표현하지. 하지만 다시 들을 때는 대충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미리 알고 듣기 때문에 안 들리던 부분이 들리게 되는 거지.

이처럼 학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 듣기가 정말 안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 책은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물론, 듣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은 이 책과 함께 최소한의 듣기 연습을 병행해야 해.

* 평가원 주관 시험을 아직 쳐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 jinx. 영어로는 처음 보지?

4. 이 책은 이렇게 구성돼있어

목차가 나와 있지만 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는 게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 우선 크게 4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있어. 차례대로 Ⅰ.유추하기, Ⅱ.계산하기, Ⅲ.미리알기, Ⅳ.미리보기 라는 단원이야. 각 단원의 자세한 설명은 각 단원 도입부에 있으니 읽어보면 돼. 그렇다면 이 4개의 대단원을 통해 어떤 유형들을 배울까?

성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리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돈 계산, 상황에 적절한 말 유형부터 대부분이 쉽다고 하는 일치/불일치, 언급유무 유형 등 대부분의 유형을 다룰 거야.

왜 쉬운 유형들까지 다루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해줄게.

너희들이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한다고 해보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부터 숙지해야겠지. 두더지 잡기의 기본적인 게임 포맷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말 그대로 두더지를 잡는 것이니깐. 하지만 각 게임별로 추가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두더지 말고 폭탄을 잡으면 점수가 깎이는 규칙 같은 것 말야.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잘 숙지하고 게임을 해야 해.

2. 게임을 진행하다보니 두더지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나 폭탄을 잡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잘 관찰해보니 특정 위치의 두더지를 놓치는걸 알았어.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니 내가 왼손잡이라 최우측 상단의 두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우측의 두더지는 잘 잡지만 반대로 왼쪽의 두더지를 잘 못 잡으니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지. 이것 말고도 개개인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 요지는 사람마다 취약점이 다르다는 거야.

3. 취약점을 찾아서 대비를 했지만 항상 모든 두더지를 잡고 모든 폭탄을 피하기는 힘들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손이 미끄러져서 실수 할 수도 있잖아?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했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 ‘손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방법이 있겠군.’과 같은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어.

단순한 게임을 가지고 너무 심오하게 설명했지? (ㄱㄱ) 다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너희들도 내가 단순히 시험에 대한 것만 말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덜 지루하다고 느낄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쉬운 유형을 다루는 진짜 이유를 알려줘야겠지? 이유는 두더지 게임을 잘 하기 위한 이유랑 비슷해.

* 아님말고 ㅎㅎ

첫째, 이 책은 영어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학생들을 주 독자로 생각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형들도 다루는 거야.

둘째, 너희가 잘하는 유형이 다른 학생들에게 취약 유형일 수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유형을 정해서 그 유형만 다루면 어떤 학생들은 도움이 안 되겠지?

셋째,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위해서야. 쉬운 유형이라 해서 항상 다 맞을 수 없는 노릇이지. 혹여나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개념이야. 그런 후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지.

물론 모든 유형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는 않아. 한 단원 전체가 한 유형을 다루기도 하고, 한 단원 안에 쉬운 유형들을 모아서 다루기도 해. 믿고 잘 따라 와주길 바라.

* 이런 것을 영어로 vice versa 라고 표현해.

vice versa : 거꾸로, 반대로, 역도 또한 같음.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이 책은 3주안에 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물론 너희들의 실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3주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이 책과 함께 기본적인 듣기 연습을 병행할 책이 한 권 필요해. EBS도 괜찮고, 아니면 이 책을 다 본 뒤에도 연습할 수 있도록 시중 듣기모의고사 문제집을 한 권 사는 것도 좋아. 단, 기출 문제집은 사지마. 중요한 기출 문제들은 연습문제에 다 수록되어있어.* 앞에서 내가

‘무조건적인 듣기를 통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했어. 이 말은 각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매일 매일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다시 듣고, 틀릴 때 까지 듣고, 딕테이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듣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냐. 3일에 한 번은 듣기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 하도록 해. 이 책을 3주 정도 공부한다면 7회 정도가 되겠지? 모의고사를 풀 때 마다 배운 것들을 최대한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해. 단, 마지막 단원인 IV.미리보기를 끝내기 전에는 몇 개를 틀리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서히 성적이 오르기보단 완전히 다 배운 후에 한 번에 점수가 확 오르더라구.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3주 만에 듣기 실력이 향상 된다고? 약 팔고 있네ㅋㅋ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학생들이 국어 독서 파트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뭘까? 본질적인 독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지. 문제 유형에 맞는 풀이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마찬가지로, 나는 3주 만에 너희들의 본질적인 듣기 실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는 없겠지만 듣기 ‘점수’를 향상 시켜줄 수는 있어. 믿고 따라와 주길 바라.

* 이 책의 연습문제는 거의 기출문제로 이루어져있어. 많은 학생들이 독해 기출문제는 여러 번 풀지만 듣기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다시 보지 않아. 심지어 풀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있을까?